

상주적십자병원,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‘제18회 QI(질 향상) 경진대회’ 개최-



-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양정현)은 지난 16일 본관 6층 강당에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제18회 QI(질 향상) 경진대회를 개최했다.
- 이날 행사에는 양정현 병원장, 임민식 의료부장, 김경호 QPS실장, 이소리 간호팀장 등 주요 보직자를 비롯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.
- 김경호 QPS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총 5개팀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각 팀별로 수행한 질 향상 활동들을 발표했으며, 최우수상(1팀), 우수상(1팀), 장려상(1팀), 입선(2팀)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.

- 이번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은 인공신장실에서 발표한 ‘동정맥루 기능부전 감소를 위한 관리 활동’ 으로 △월 1회 동정맥루 혈류량을 측정하여 완전 폐색을 예방하고, △혈관관리 매뉴얼을 통한 신규직원 교육, △혈관 관리 동영상을 통한 주기적인 환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신장 투석환자의 동정맥루 시술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나타냈다.

- 우수상은 ‘응급검사 TAT 단축을 통한 충족률 개선활동’ 을 발표한 진단검사의학과, 장려상은 ‘간호간병통합병동 맞춤 낙상예방활동’ 을 발표한 302병동에서 수상했다.

- 양정현 병원장은 ‘올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QI주제는 전년도 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올해도 동일 주제로 QI활동 결과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,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’ 고 하면서 일상의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지난 1년간 QI 활동에 애써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.